

▶▶▶ 2026년 7월 2일

KIWOOM **매크로** 따라잡기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Economist 김유미 / RA 김정현

AI 투자 사이클과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2026년 6월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9% 증가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가격 강세가 반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으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6월 비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거나, 일반기계와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의 회복세는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반도체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수출 구조의 편중 심화는 중장기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반도체가 수출 성장을 견인하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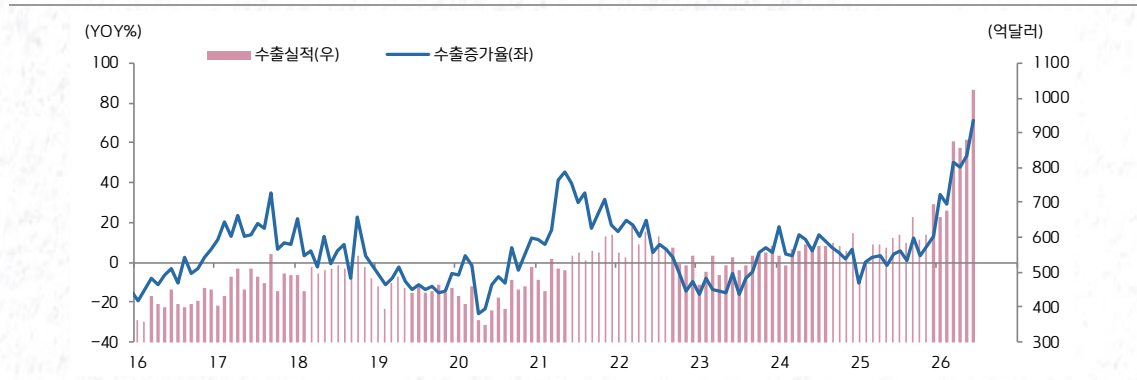
2026년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0.9% 증가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수출액은 1,022.5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상회했으며,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 역시 동월 대비 59.5% 증가한 45.4억 달러를 기록해 2개월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품목별로는 20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18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99.5% 급증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와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반도체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올해 상반기 누적 수출은 1,924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연간 실적(1,734억 달러)을 이미 넘어섰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SSD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컴퓨터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09% 증가해 전체 수출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하며 5월(16.6%)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은 수출 통제와 국내 우선 공급 등의 영향으로 수출 물량은 감소했지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으로 금액 기준 수출은 증가했다. K-뷰티와 K-푸드에 대한 글로벌 수요 확대에 힘입어 화장품(70억 달러, +27.2%)과 농수산물(66억 달러, +8.7%) 등 소비재 품목도 상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바이오헬스 수출은 위탁생산(CMO) 주주 확대 등에 힘입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일반기계 수출도 해외 현지공장 증설에 따른 제조 장비와 기계 부품 수요 확대에 힘입어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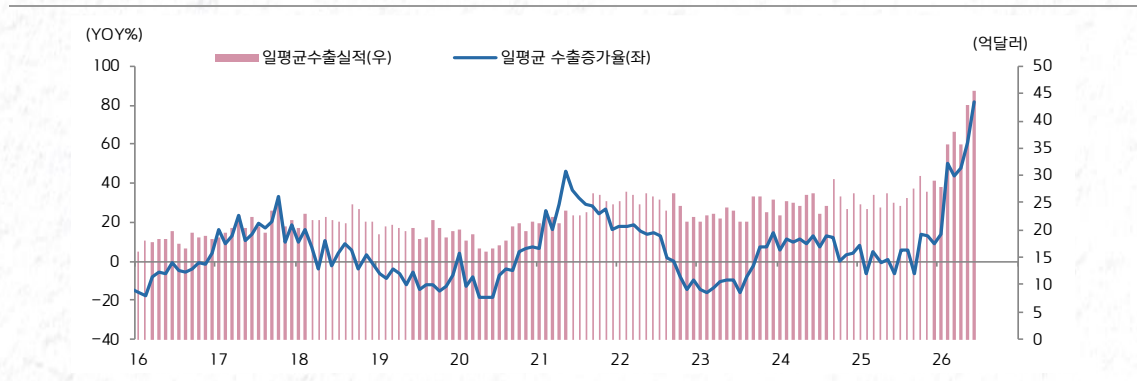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시장 가운데 7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수출이 5개월 연속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92.1% 증가했다. 대미국 수출 역시 반도체와 컴퓨터 수출이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자동차와 일반기계 등 주요 품목도 호조를 보이며 전년 동월 대비 78.6% 증가했다. 대아세안 수출도 반도체와 석유제품,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국 수출 실적과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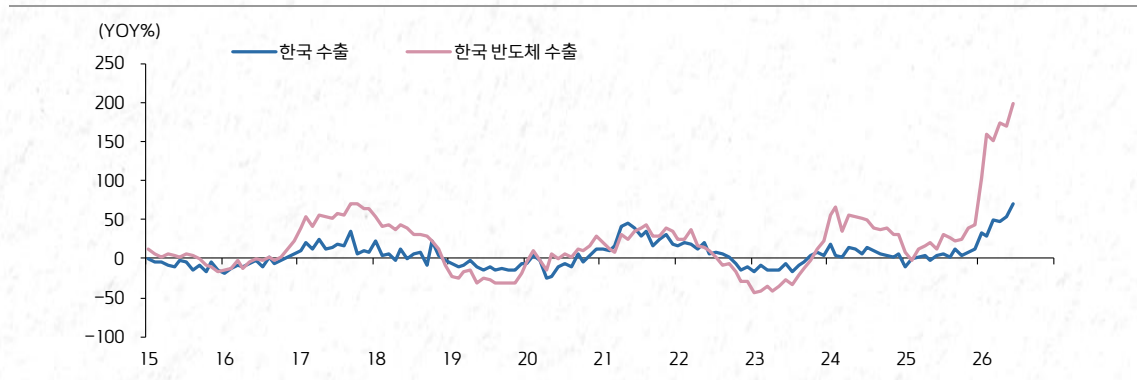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일평균 수출액과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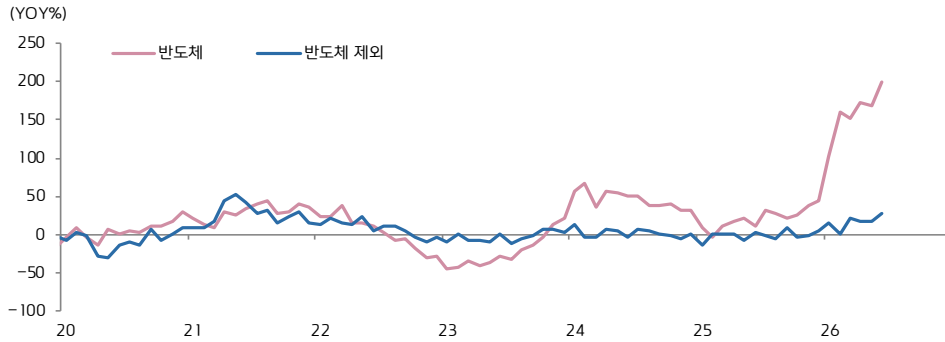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수출과 반도체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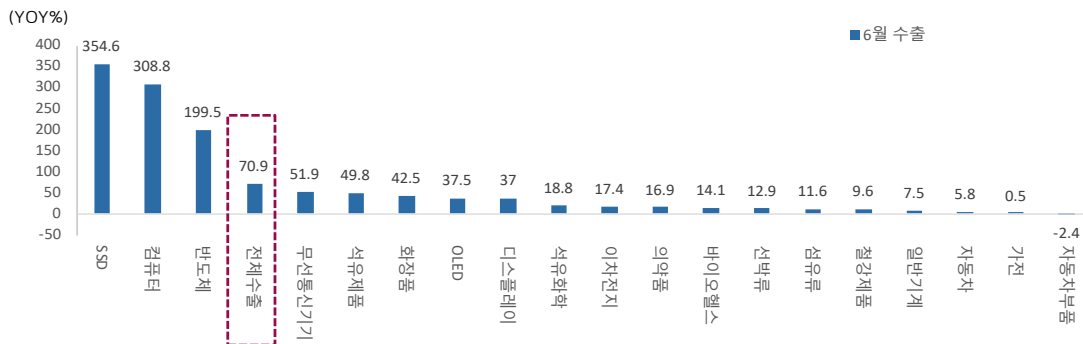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수출과 반도체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수출, 주요 품목별 6월 수출 증감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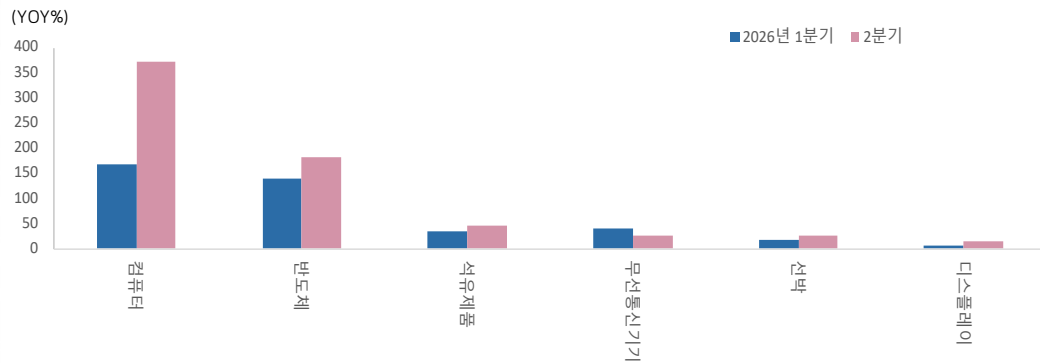
6월 수출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이는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중심의 IT 수출 호조가 여전히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AI 관련 자본지출(CAPEX)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를 비롯한 AI 인프라 관련 산업의 수요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공격적인 AI 투자 확대로 빅테크 기업들의 잉여현금흐름(FCF)은 감소하는 반면 설비투자는 빠르게 증가하는 비대칭적인 재무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그러나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AI 투자 계획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공실률이 1%대에 머무는 등 실수요 역시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의 AI 도입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만큼 현재 확인되는 대부분의 지표는 AI 투자 사이클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 역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가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업황이 양호한 국면에서는 수출과 성장률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반도체 수요가 둔화될 경우 수출과 경기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실제 반도체의 수출 기여도가 확대되면서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6월 기준 43.8%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말 29.9%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수출의 반도체 편중 현상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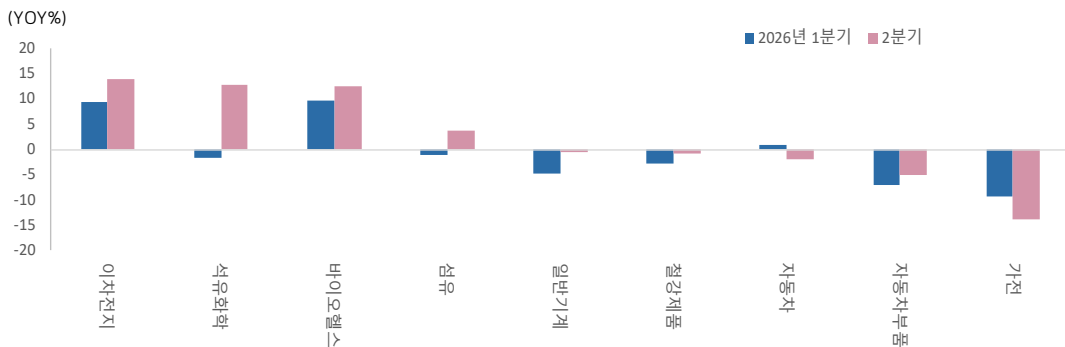
향후에는 비반도체 수출의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올해 분기별 수출을 보면 컴퓨터와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차전지와 바이오헬스, 화장품 등의 수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반면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의 개선은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지속성을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일반기계와 철강은 감소 폭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2분기 들어 감소세로 전환됐다. 자동차 부품과 가전 역시 1분기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전통 제조업의 최종 수요는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월 들어 비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 회복세는 여전히 제한적인 모습이다. 따라서 당분간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성장세가 비반도체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가 우리나라 수출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주요 수출 품목, 분기별 증가율(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주요 수출 품목, 분기별 증가율(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